

“브로드피크 정상에 서서 희망 외치겠습니다”

장애인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 도전
산악인 김홍빈 대장

“광주일보는 내 도전의 동반자
장애인에 꿈 심어주고 싶어”
12년간 세계 7대륙 최고봉 올라
14좌 중 브로드피크 한곳만 남아
월출산서 암벽 훈련하며 의지 불태워

“저의 히말라야 도전에는 광주일보가 동반자였습니다.”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도전 중인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55·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회장·골프 흥보이사)은 창사 68돌을 맞은 광주일보와의 인연을 이같이 밝혔다.
김홍빈 대장은 이어 “전문 산악인들을 비롯해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등에도 관심을 꾸준히 가져 준 덕분에 지역 산악계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지난 17일 영암군 월출산 시루봉 암벽장에서 암벽등반을 하고 있다.

히말라야 14좌 중 브로드피크(Broad Peak·8047m) 1곳을 남겨두고 있는 김 대장은 현재 전국 각지를 돌며 훈련을 거듭하는 중이다.
지난 3월부터 무주와 용평 등의 스키장 슬로프 등에서 설상 훈련을 진행했고 날이 풀리자 유명 산지의 암벽장에서 기술 훈련 등에 집중하고 있다.
김 대장이 이끄는 ‘희망나눔 2020 브로드피크(8047m)원정대’는 김 대장을 비롯해 피길연(부단장 겸 추진위원장), 류재강(등반대장), 류주숙(행정), 정우연(장비·식량), 정득채(수송), 허근(포장), 김성심(의료), 박성민(식량), 나정희(촬영·기록) 대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원들 모두 바쁜 시간을 쪼개 훈련에 참여하며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
지난 17일 전남 영암 월출산 시루봉에서 암벽을 오르내리는 김 대장의 모습에서 14좌 완등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엿보였다.
양 손의 손가락들이 있어야 할 곳에 암벽등반용 테이프를 칭칭 감고 바위 틈새를 비집어내기를 수 차례. 위치를 확보하고 차근차근 등반 코스를 오르는 모습은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었다.
비장애인이라 오르다가 지치면 손과 발에 의지해 천천히 내려오겠지만 김 대장은 손으로 붙잡을 수 없어 오로지 몸에 묶여있는 로프에만 의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2차 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어 다른

이들보다는 비록 더디지만 신중히 판단하며 몸을 움직여 등반해 나갔다.
김 대장에게 손가락이 없는 장애는 오히려 약조를 이겨내는 원동력이다.
남들보다 부족하기에 그만큼 체력을 길러야 했고 손가락 마디가 없는 대신 하체 힘을 길렀기에 꺾이지 않는 암벽도 버텼다.
무엇보다 김 대장에게는 ‘히말라야 14좌 완등’이라는 원대한 포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김 대장은 지난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매킨리(6194m)를 단독 등반하다 조난을 당해 열 손가락을 잃었다.
모두 7차례에 걸쳐 대수술을 받았지만 살릴 수 없었다. 손가락이 없으니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컸다. 용변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처음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힘겨운 삶이 이어졌다. 장애인용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화물차 운전도 했었고 굴삭기도 다룰 줄 알았지만 신체적인 제약으로 오래 할 수 없었다.
시련을 겪으면서도 김 대장은 ‘산’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장애인 산악인들도 꿈꾸지 못하는 세계 7대륙 최고봉을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고 이후 낙담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신체적으로 제약 받아 의욕을 잃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목표를 세운 만큼 몸을 만들어갔다. 수일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지리산을 종주하며 고산 등반에 탁월 예상치 못한 약조건을 견디는 법을 터득했고 자전거와 스키 등으로 하체 단련도 이어갔다.
그는 ‘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통해 희망을 잃지 않고 꿈꿔 왔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 나갔다.
김 대장은 1997년 엘브루즈(5642m·유럽)과 킬리만자로(5895m·아프리카)를 시작으로 1998년 매킨리(6194m·북미)와 아콩카과(6959m·남미), 2007년 코지야스코(2228m·오세아니아), 에베레스트(8848m·아시아), 2009년 빈스메시프(4897m·남극)까지 약 12년에 걸쳐 세계 7대륙 최고봉에 올랐다.
7대륙 최고봉 완등을 이뤄내자 김 대장은 거칠 것도 두려운 것도 없었다.
2006년 가셔브롬Ⅱ봉(8035m·파키스탄), 시사파마(8027m·티베트)와 2007년 에베레스트 등정으로 힘을 받은 김 대장은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8000m 급 14좌 완등을 새로운 목표로 세웠다.
그는 2008년 마칼루(8463m·네팔), 2009년 다

올라기리(8167m·네팔), 2011년 초오유(8201m·네팔) 2012년 K2(8611m·파키스탄), 2013년 칸첸중가(8586m·네팔), 2014년 마나슬루(8163m·네팔), 2017년 로체(8516m·네팔), 낭파파르밧(8125m·네팔), 2018년 안나푸르나(8091m·네팔), 2019년 가셔브롬Ⅰ봉(8068m·파키스탄)을 차례로 오르며 파키스탄의 브로드 피크 단 1곳만 남겨두고 있다.
원정대는 오는 6월 파키스탄으로 출국해 약 2개월 동안 머무르며 브로드피크 정상을 공략할 예정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파키스탄 내 확진자 증가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김 대장은 “국내에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3월부터 파키스탄으로 입국하는 항공편이 전면 중단됐고 확진자도 8000명 가까이 나오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우기가 지속되는 9월까지도 등반이 가능하기에 현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브로드 피크 정상에 올라 코로나 19로 인해 삶이 피폐해지고 지친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인들에게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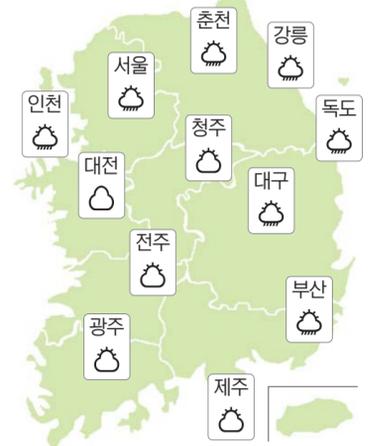
해돋이	05:54	달뜨기	04:46
해질	19:09	달짐	16:33

구름 낀 하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8/18	보성	구름많음	6/18
목포	구름많음	9/14	순천	구름많음	9/20
여수	구름많음	11/18	영광	구름많음	7/16
나주	구름많음	6/17	진도	구름많음	9/15
완도	구름많음	10/17	전주	구름많음	8/18
구례	구름많음	8/20	군산	구름많음	7/15
강진	구름많음	8/17	남원	구름많음	7/19
해남	구름많음	7/17	흑산도	구름많음	9/15
장성	구름많음	7/18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1.5	0.5~1.0	
	면바다(북)	1.0~2.0	0.5~1.5	
	면바다(남)	1.0~2.0	0.5~1.5	
남해서부	앞바다	1.0~3.0	0.5~1.0	
	면바다(서)	2.0~4.0	1.0~2.0	
	면바다(동)	2.0~4.0	1.0~2.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6:00 18:27	00:42 13:07
여수	01:35 14:00	08:01 20:08

◇ 생활지수

보통	보통	좋음

◇ 주간 날씨

21(화)	22(수)	23(목)
7/15	5/13	5/14
24(금)	25(토)	26(일)
5/17	7/20	8/19

광주신세계안과, 호남 최초 다초점 인공수정체 3000례 인증

광주신세계안과(대표원장 김재봉·사진)가 호남 지역 최초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리스트리 렌즈 3000례를 시술해 인증서를 받는다.
제조업체인 독일의 칼자이스(Carl zeiss)사는 광주신세계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에게 ‘리스트리 3000례 기념’ 인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리스트리 렌즈는 백내장 수술시 혼탁해진 수정체의 역할을 대신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원거리·중거리·근거리 시력까지 함께 교정할 수 있다.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노안수술 렌즈인 리스트리는 독일의 광학기업인 칼자이스에서 출시된 렌즈로 단초점·다초점 렌즈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었던 중간거리 시력을 효과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백내장 수술은 부형계 된 수정체를 제거



특히 이 렌즈는 망막에 전달하는 빛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해 원거리의 빛 양을 분해, 3종의 초점을 잘 볼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야간 빛 번짐이나 달무리 현상을 개선해 야간 시력의 질을 향상시켜 기존 수술보다 훨씬 선명하고 또렷한 시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북부소방서, 전통시장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광주북부소방서(서장 이원용)가 최근 전통시장을 찾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했다. 소방차 퍼레이드, 안내방송을 통한 소방 정책 홍보 등도 함께 진행됐다. <광주북부소방서 제공>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0일 (음 3월 28일 쫓바)

☎ 010-9790-8237

36년생 호조건으로 전환될 수도 있으나, 48년생 한 곳에 몰입해야만 양호한 결과가 있느니라. 60년생 내키지 않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나, 72년생 사세의 가닥을 쳐야할 결정적인 시기이나, 84년생 안정세를 취해야겠다. 96년생 핵심 가치에 중점을 뒀다.
행운의 숫자 : 29, 98

37년생 수효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한다. 49년생 꾸준히 실행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61년생 제대로 실력을 발휘 해야만 현재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 73년생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 85년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 97년생 즉흥적인 조치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 하자.
행운의 숫자 : 24, 53

38년생 정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50년생 중간 점검이 성과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62년생 때가 아니면 집착일랑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74년생 재난에 대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86년생 헛고생하게 될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다른 길을 모색하자. 98년생 기만하면 으르면 된다.
행운의 숫자 : 71, 76

39년생 성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다. 51년생 기본 질차는 분명히 지켜야 하느니라. 63년생 자연히 따라 올 것이니 앞만 보고 나아가면 된다. 75년생 지금 변화를 시도한다면 생산적인 국면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87년생 이를 데 없이 귀하지만 자만한다면 쉽게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99년생 천재일우의 기회이나, 행운의 숫자 : 34, 94

40년생 빨리만 하려 하지 말고 정확히 행하라. 52년생 중차대한 것이니 절대로 놓치지 않음이 좋다. 64년생 뻥히 다 예견하면서도 일부러 자초할 필요까지는 없느니라. 76년생 내색하지 않음이 차라리 더 나은 것이다. 88년생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괴로워 할 수도 있다. 00년생 판세가 전환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8, 60

41년생 의지와는 전연 상관없는 상태가 된다. 53년생 설렁 눈에 띄더라도 못 본체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느니라. 65년생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77년생 가능하다면 대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 89년생 지리멸렬한 소강상태로 정제 되는 판국이다. 01년생 아차하면 손해가 발생한 다.
행운의 숫자 : 46, 99

42년생 어떠한 현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중대가 있어야겠다. 54년생 가까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성국이다. 66년생 장애 요소가 나타나겠지만 손을 쓰면 곧 수습되리라. 78년생 거의 똑같은 국량이 반복되면서 다소 지루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는 운세이다. 90년생 중차대한 것을 이행하게 된다. 02년생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5, 56

31년생 의외의 결과물 앞에서 매우 기뻐하는 태양이다. 43년생 지금 상태대로 내려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미리 해법을 강구해 뒀다. 55년생 당면 과제부터 점검하자. 67년생 현명함 결단이 위기를 극복케 한다. 79년생 초심을 잃지 말아야 진행이 가능하다. 91년생 상호 공생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19, 93

32년생 지리멸렬했던 소강상태를 지나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44년생 예방만이 안전을 도모하리라. 56년생 강구한다면 경제성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68년생 지엽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대국을 바라보자. 80년생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92년생 긴 안목과 넓은 식견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8, 52

33년생 무난하게 통과하게 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45년생 절제한다면 성숙한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 57년생 머지않아 가닥이 잡힌다. 69년생 상호간에 부담감을 주지 않는 것이 낫겠다. 81년생 의외로 쉽게 결정된다. 93년생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손해를 본다.
행운의 숫자 : 01, 71

34년생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성가시게 한다. 46년생 일반적인 방법의 채택이 무난하다. 58년생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편해질 것이다. 70년생 재고하라. 82년생 가능성은 농후하니 실행에 옮겨도 지장이 없다. 94년생 현재의 면모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추세까지 감안하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16, 57

35년생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저절로 해결 된다. 47년생 얼마나 깊이 다루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59년생 당해 상황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중한 것이니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라. 71년생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83년생 지속가능해야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 95년생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1, 66